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 성료

드론 · 로봇 스포츠대회 · 공연 · 전시 · 체험 · 글로컬푸드 페스티벌 등 열려

남원시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항공안전기술원이 후원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지난 1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막을 올렸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제전은 드론과 로봇 산업의 기술, 정책, 문화가 융합된 복합형 페스티벌로 기획되었으며, 개막 첫날부터 시민과 학생, 국내외 산업 관계자 등 1만여 명이 현장을 찾아 성황을 이뤘다.

개막식에서는 드론라이트쇼와 EXO 시우민, 프로미스나인, 박지현 등 가수들의 공연이 하늘과 땅을 날라들며 남원의 미래 비전을 상징적으로 선보이고, DFL 경기 시연으로 선수들이 고속 비행과 정밀 제어 기술을 선보이며 관람객들의 환호를 이끌어 냈다.

이번 제전은 국토교통부와 항공안전기술원이 공동 추진 중인 'K-Drone to World Festival'과 연계되어 국내 드론 · 로봇 산업의 세계화와 대중화를 선도하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행사 기간 동안 남원종합스포



남원시와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항공안전기술원이 후원하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이 지난 16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에서 막을 올렸다.

츠타운 일원에서는 전시 · 컨퍼런스관, 드론 · 로봇 스포츠대회, 체험존, 글로컬푸드 페스티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17일과 18일에는 남원 전국 유소년 드론축구대회, 지자체 실증사례 컨퍼런스, G-PRC 드론 로봇 경진대회 등이 진행됐고, 마지막 날인 19일에는 폐막식 및 시상식과 핑크퐁 심어롱 공연이

펼쳐지며 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최경식 시장은 개막식 환영사에서 "올해로 세 번째 열리는 2025 남원국제드론제전 with 로봇"을 통해 드론과 첨단기술, 사람이 함께 어우러지는 남원의 무한한 이점표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드론스포츠 중추도시 남원이라는 브랜드를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출범

남원국제드론제전 행사장서... 세계 드론레이싱 산업 발전 · 협력

남원시는 지난 16일 오후 5시, 2025년 남원국제드론제전 행사장에서 세계 드론레이싱 산업의 발전과 국제 협력을 위한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식을 개최했다.

출범식에는 남원시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드론레이싱 해위리그 대표 등이 모여, 세계 각국의 드론레이싱 리그 대표들이 향후 연맹체계를 구축해 전 세계인이 즐기는 미래 스포츠로 초석을 다지기 위한 자리로, 1부

에서는 드론 레저스포츠 활성화와 국제 컨퍼런스, 2부에서는 국제 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식으로 진행되었다.

1부 국제컨퍼런스에서는 DFL코퍼레이션대표를 비롯한 해외 드론레이싱 관계자들이 모여 DFL 국제드론레이싱 연맹 관련 다양한 의견 교류와 협력을 바탕으로 국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2027 DFL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전방안에 대해서 논하고, 2부에서는 최경식 시장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관계자 및 드론레이싱 관련기업들이 참석한 가운데 유럽 DCL, 미국CPR, 한국DFL등 6개 드론레이싱 리그들간 국제 드론레이싱 연맹 출범을 선언했다. 최경식 시장은 "연맹 출범을 통해 전 세계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 환경을 조성, 세계속에 대한민국 남원이 드론레이싱의 중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 승격

순창군과 순창교육지원청이 공동 추진해온 교육발전특구 사업이 지난 13일 정부 평가에서 '관리지역'에서 '선도지역'으로 승격되면서, 추가 사업비 5억 원의 재정 지원을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시범 운영 중인 특구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것으로, 운영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사업 추진 기반 마련을 위해 시행됐다.

순창군은 특히 교육공공체 간 협력

과 지역 인재 육성 분야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으며 선도지역으로 선정됐다.

순창군의 교육발전특구 사업은 지난해 시범지역으로 처음 선정된 이후, 올해로 2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K-발효바이오 산업 및 농촌유학 1번지'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역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발효미생물 산업과

연계한 취 · 창업 지원 프로그램, 농촌 유학 거점시설 및 특화 프로그램 확대, AI 기반 어학 교육, 어학 및 진로 진학센터 조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지역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교육모델로 평가 받고 있다.

이번 선도지역 지정으로 인해 순창군은 기존 예산 129억 7천만 원에 더해 5억 원을 추가로 확보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지역 교육 혁신과 공공육 양화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순창=이영원 기자



(재)광영공익재단이 지난 16일 임실보통인재학당에서 심 민 임실군수와 장학생, 가족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광영공익재단 2025년도 아동 · 청소년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아동 · 청소년 꿈을 응원합니다”

광영공익재단, 임실 학생 20명에 3000만원 장학금 · 장학 증서 수여

“저의 인생에는 회색하진 부모님과 훌륭한 스승, 그리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장학금이 여러분에게 귀한 인연으로 후에 사회에 환원하는 따뜻한 인재가 되는 밑거름이 되길 바랍니다”.

(재)광영공익재단(이사장 심상우)이 지난 16일 임실보통인재학당에서 심 민 임실군수와 장학생, 가족 및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광영공익재단 2025년도 아동 · 청소년 장학생 장학 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재단은 지역 내 아동 · 청소년 20명에게 1인당 150만원씩 총 3천만원의 장학금과 장학 증서를 수여하며, 경제적 여건에 상관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임실군 삼계면이 고향인 허광욱 명예 이사장은 1996년생으로 소작농의 가정에서 태어나 일제 강점기의 핍박과 6.25 전쟁의 고난을 겪으면서도 학업에 대한 열정으로 고학의 결실을 힘겨게 맺었다. 서울대 영어교육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스탠포드대 최고

경영자 과정에 이르기까지 배움의 끈을 놓지 않았다.

국내 굴지의 대기업 임원으로 퇴직하기까지 40여 년간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검절약하여 모은 재산을 뜻깊은 곳에 쓰고자, 6년 전 별세한 아내(故 김영순 여사)와 함께 2015년 광영공익재단을 설립했다.

이후 고향인 임실군의 아동 · 청소년 장학생들에게 4년간 장학금 1억2천4백만원을 지원하며 지역 인재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고 있다.

특히, 행사에서는 허광욱 명예 이사장의 서한이 낭독되어 감동을 더 했다.

허 명예 이사장은 서한을 통해 “어려운 환경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서울대 진학의 꿈을 이뤘던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지금의 어려움은 반드시 값진 밑거름이 될 것이며, 오늘 받은 장학금이 응원하는 마음으로 낱길바라나"며 “이 기회를 공부에 충실히 사용하고, 나중에 성장하여 지역사회에 베풀 줄 아는 훌륭한 인재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임실=전홍영 기자

남원시,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 성료

남원시는 지난 16일~17일 남원종합스포츠타운 일원에서 국제드론축제 with로봇과 연계하여 청소년 진로 직업체험 박람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첫날 행사에서는 캘리그라피 김소영씨가 붓글씨 캘리 퍼포먼스로 멋진 개막을 알렸으며, 유망 직업인으로 초대된 남도형씨는 성우로 성공하기까지의 과정과 에피소드로 청소년들의 흥미를 이끌어냈다.

박람회는 사전 의견조사와 간담회를 통해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 분야 40여개 콘텐츠의 진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교통편의 제공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여 청소년 수송



차량을 배차, 운행한 결과 전년 대비 1,000여명 이상이 참여 △청소년 직업 체험 & 진로 컨설팅 △관공서, 유관기관, 은행, 시설 등 현장 근무자 1:1 멘토링 △개막식(축하공연, 퍼포먼스) △유망 직업인 토크 & 공연 △청소년 공연 △고교 및 대학 학과 소개 등이 진행되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소식 통

순창군, '장 담그기 문화' 유네스코 등재기념 행사성료

순창군과 순창발효관광재단은 지난 17일 순창발효테마파크 앞 열린무대에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장 담그기 문화'를 기념하는 특별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같은 기간 열린 제20회 순창장류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한국 전통 장 담그기 문화의 세계적 가치와 의미를 널리 알리고, 순창이 '발효의 성지'이자 '대한민국 장문화의 중심지'임을 대내외에 재확인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 당일 많은 군민과 관광객이 행사장을 찾아 장 담그기 시연 퍼포먼스, 전통 장류 명인의 참여, 축하 공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함께 즐기며,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되새겼다.

특히, 장류 명인 · 기능인과 시민이 함께한 '유네스코 등재 기념 장 만들기' 퍼포먼스는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는 참여형 행사로 큰 호응을 얻으며, 공동체적 전통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됐다.

/순창=이영원 기자

임실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 93.8%

임실군은 지난 16일 기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률이 93.8%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대상자 24,599명 중 23,091명의 군민이 신청하였고, 지급액은 23억에 달한다.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은 10월 31일까지 진행되며, 개인별 10만원이다.

2차 지급 대상자는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 선정 기준 이하에 지급되며,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온 ·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용 · 체크카드, 임실사랑상품권 카드, 선불카드 중 선택하면 된다.

소비쿠폰은 1 · 2차 동일하게 11월 30일까지 사용가능하며, 기간 내 미사용 시 자동 소멸된다. 군은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독려와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통해 고령자 · 거동 불편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임실=전홍영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전주매일 캠페인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경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 · 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A)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돌리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열어 놓았는데, 여름에는 바람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 · 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뒷마루와 난간을 돌리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초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